

文化大革命時期 ‘灰皮書’의 수용과 유통

- 『新階級』을 중심으로 -

孫承會*

〈차 례〉

- I. 서론
 - 1. ‘회피서’의 등장과 유통
 - 2. 『新階級: 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의 수용과 그 영향
- II. 결론

【국문초록】

‘회피서’는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이 제한된 ‘내부발행’된 금서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정주의자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물이었다. 그러나 이들 금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혁세대에 전달되었고 기존 공산주의 현실과 이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홍위병의 해체와 지식청년의 등장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
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562515).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sonshoi@ynu.ac.kr

다양한 형태의 지하독서운동의 과정에서 ‘회피서’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그 결과 ‘회피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문혁세대에게 주입식 선전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상적 계몽을 자극하며 맹목적 체제 수용이기보다는 회의와 성찰 그리고 비판을 촉발시켰다.

대표적으로 질라스의 『신계급』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산당이 새롭게 파시스트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경고는 모택동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관료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피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반혁명 復辟이 일어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반드시 수정주의 정당으로 변모하고 더 나아가 파시스트정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시스트정당은 모택동 지적에 따르면 특권관료 계층에 의한 정당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한 프롤레타리아계급 권력·재산의 재분배 또는 부르주아계급의 부활을 막기 위해 혁명은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혁의 지배적 담론은 형식적으로 볼 때 질라스의 『신계급』에서 보이는 ‘신계급론’, ‘특권계층론’ 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문혁세대가 큰 거부감 없이 질라스의 『신계급』이라는 ‘회피서’를 수용하게 된 데에는 문혁담론과의 유사성이 큰 작용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혁세대는 『신계급』에 열광했고 이 ‘회피서’는 공산당과 문혁을 재검토하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성찰의 교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주제어: 문화대혁명, ‘灰皮書’, 신계급, 밀로반 질라스, 毛澤東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으로 약칭)에 대해서는 홍위병으로 상징되는 파괴, 폭력, 광기, 비정상, 개인숭배, 극좌 이념과 같은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그것은 문혁을 부정하고 집

권한 중국의 현 집권세력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화두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혁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혁이 보여준 또 다른 측면, 이를테면 이성, 정상, 일상, 계몽, 민주라는 이면에 주목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¹⁾



[紅寶書]

- 1) 다음과 같은 연구를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한다.(金大陸 『正常與非正常—上海‘文革’時期的社會生活』(上·下), 上海辭書出版社, 2011; 趙園, 『非常時代: 1964-1978』(上·下冊),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劉國凱, 『人民文革論』, 博出版, 2006; 孫承會, 『文化大革命과 極左派: 毛澤東을 비판한 紅衛兵』, 한울엠플러스, 2019.) 이밖에 문혁시기 ‘이단사조’ 혹은 민간사상에 주목한 연구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宋永毅·孫大進, 『文化大革命和它的異端思潮』, 香港: 田園書屋, 1997; 印紅標, 『失蹤者的足跡—文化大革命期間的青年思潮』, 香港: 中文大學, 2009; 楊建, 『1966-1976的地下文學』, 中共黨史出版社, 2013; 錢理群, 『熾火不息: 文革民間思想研究筆記』(上·下卷),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본고에서 다루게 될 도서 분야에 국한 시킬 경우 전자의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紅寶書’²⁾라고 할 때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灰皮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피서’란 1960년대 초 소련과의 이념분쟁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에 의해 정책적으로 내부 간행된 도서를 주로 가리킨다. 이하에서는 ‘홍보서’와 대비되는 ‘(大)毒草’ 또는 ‘反面教材’로 등장한 이들 ‘회피서’가 어떠한 과정과 계기를 거쳐 문혁기간 홍위병 혹은 上山下鄉 지식청년(知青)에게 수용되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회피서’가 문혁세대를 중심으로 사상해방운동 혹은 계몽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³⁾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회피서’의 등장과 유통 그리고 영향을 문혁의 실상과 연결 지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禁書의 ‘이단사조’는 毛澤東 중심의 ‘정통사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문혁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광범하게 전파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즉 ‘회피서’에 대한 구체적 사례

2) 붉은 표지의 소중한 책이란 의미의 ‘紅寶書’는 毛澤東의 발언을 취합에 만든 『毛澤東語錄』를 특별히 지칭하지만 그밖에 그의 저작 혹은 지시문, 사 회주의 고전과 문혁 관련 자료까지 같은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3) 鄭瑞君 등은 ‘灰皮書’가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사상해방을 촉발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鄭瑞君, 「“灰皮書”·“黃皮書”在知識青年“上山下鄉”前後的流傳及其影響」,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2015. p. 3; 徐友魚, 「上山下鄉大知青一代思想形成的影響」, 『二十一世紀雙月刊』, 2013. 4, 總第136期, pp. 19-20 참조). 1970년대 초반 재발행된 ‘회피서’의 영향에 대해 朱學勤은 “건초가 널려 있는 황야에 한 줌 불똥을 퍼뜨리는 것”이라 비유했다. 이때 그는 두 권의 책을 구해 읽었는데 그러한 ‘행운’이 없었다면 그의 “계몽은 5년 혹은 심지어 10년이나 뒤쳐졌을 것”이라 하였다. 이 두 권은 林彪 측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 『五七一工程紀要』와 ‘上海出版系統五七幹校翻譯組’에 의해 번역된 역서, 즉 ‘회피서’였다.(朱學勤, 「‘娘希匹’與‘省軍級’-‘文革’讀書記-」, 『上海文學』, 1994-4, p. 99; 朱學勤, 『思想史上的失蹤者』, 花城出版社, 1999, p. 179.)

검토를 통해 ‘회피서’의 수용과 전파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중국의 ‘焚書坑儒’로 상징되는 문혁의 이면을 재검토하고 문혁과 그 이후의 사상사적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회피서’의 등장과 유통

회피서는 1960년대 초 스탈린에 대한 평가와 수정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소련공산당과의 이념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간행을 주도한 일련의 출판물을 가리킨다.⁴⁾ 표지가 모두 아무 디자인이 없는 회색 종이로만 제작되어 사람들은 ‘회색 표지의 책’ 즉 ‘灰皮書’로 통상 불렀다.

‘회피서’라는 명칭은 후에 중앙문혁소조 고문을 맡게 될 康生이 처음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소논쟁시기 소련공산당 비판을 위한 ‘九評’ 기초를 책임졌던 康生은 ‘내부참고’를 위한 ‘反面教材’의 활용을 위해 毛澤東의 뜻에 따라 ‘회피서’를 제작했다.⁵⁾

4) 이하, ‘회피서’의 유래와 종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기하지 않는 한 印紅標, 土屋昌明譯, 「文革後期における青年たちの讀書と思想的探求」,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585, 2012; 印紅標, 앞의 책; 張惠卿, 「“灰皮書”的由來和發展」, 『出版史料』, 2007-1; 張惠卿, 「國際反修鬭爭和“灰皮書”」, 『炎黃春秋』, 2009-9; 張惠卿, 「“灰皮書”的由來與發展」, 『炎黃春秋』, 2013-4; 참조. 이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차이를 보일 경우 특별히 주기할 것이다. 張惠卿은 당시 人民出版社 총편집장으로서 ‘회피서’ 간행을 위해 출판사 내에 설치된 국제정치편집조의 조장을 맡았다.

5) 최초 ‘회피서’는 1960년말 경 康生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베른슈타인과 카오츠키의 독일어본을 중선부 상무부장 겸 중앙번역국 국장 許立群에게 제공하여 번역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다.(鄭異凡, 「從‘灰皮書’到‘人民文庫’-‘灰皮書’的來龍去脈」, 鄭異凡, 앞의 책, pp. 6-7 참조.) 또한 특히 1963년 9월부터 1964년 7월까지 『인민일보』 편집부와 『홍기』 잡지편집부는 공동으로 소련공산당중앙을 겨냥한 9편의 평론(『九評』)을 발표하였고 그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회피서’가 간행되었다: 『蘇聯“全民黨”問題文摘』, 『蘇聯“全民國家”問題文摘』, 『蘇聯發達社會主義的言論摘錄』, 『赫魯曉



[灰皮書]

이때 康生은 ‘회피서’의 명칭과 발행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들 ‘불온서적(壞書)’에 灰色紙로 겉표지를 삼으면 사람들은 바로 그것의 정체(正體)를 알 것이라 했다.⁶⁾

‘회피서’ 발행과 관련하여 1962年 11月 8日 康生은 全國宣傳工作會議 講話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석께서 우리에게 수정주의 저작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베른 슈타인, 카오츠키, 프레하노프, 트로츠키 등의 저작을 체계적으로 출간할 것을 요구하셨다. ... 12월에 일부 저작이 간행될 수 있을 것이

夫等關於戰爭與和平問題的謬論』,『蘇共領導和鐵托集團等對資本主義世界的荒謬看法』,『現代修正主義關於國際形勢和對外政策的言論』,『關於無產階級革命和“和平過渡”問題的現代修正主義言論』,『第二國際修正主義者和托洛茨基關於無產階級政黨的反動言論』,『關於人道主義的現代修正主義言論』,『反對無產階級專政·宣揚“全民國家”的現代修正主義言論』,『蘇聯報刊反華言論』. 이상, 張卿惠(2019), p. 19 참조.

6) 이는 1963년 국제문헌연구소에서 근무했던 馮修惠의 말에 따른 것이다.(康生對編譯托洛茨基材料的指示)(鄭異凡根據王惠德等人提供的材料編寫, 1967), 鄭異凡 主編, 『“灰皮書”-回憶與研究』, 瀋江出版社, 2015, p. 455.)

다. 외부의 省 동지들은 독일어,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지원해주기 바란다.”⁷⁾

이상과 같이 毛澤東의 요구에 따라 康生은 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康生이 주도하는 反修寫作小組에 참가한 중선부 부장 陸定一은 중앙선전부 내에 外國政治學術書籍編譯工作辦公室을 설치하여 ‘회피서’ 발행을 주관하게 했다. 판공실은 수정주의 혹은 기회주의 사상 관련 저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외국 도서를 선정하여 人民出版社(三聯書店 명의로 출간), 商務印書館, 世界知識出版社, 上海人民出版社 등 4곳을 지정 번역 출판하게 하였다.⁸⁾

이 과정에서 판공실은 『外國政治學術書籍編譯工作簡報』를 통해 관련 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회피서’ 선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원만한 ‘회피서’ 간행을 위해 중앙편역국국제실은 『修正主義者・機會主義者著作目錄』을 발행하였다. 이 목록집에는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로 판단되는 총 39명의 관련 저작 목록이 정리되었다.⁹⁾ 특히 이 책은 중국 내의 소장 저작에 대해 中央馬恩列斯著作編譯局圖書館, 북경도서관, 商務印書館資料室, 高級黨校圖書館, 인민출판사자료실 등 19개 단위와 그들의 분류 번

7) 「康生對編譯托洛茨基材料的指示」, 『“灰皮書”-回憶與研究』, 瀋江出版社, 2015, p. 454 참조.

8) 일반적으로 ‘회피서’는 3-5천 권, 특별한 경우 1만-3만 권 발행되었다.(이상, 許力以, 위의 글, p. 319 참조.)

9) 3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Proudhon, Lassalle, Bakunin, Bernstein, Kautsky, Vollmar, Kampfmeyer, Cunow, David, Legien, Scheidemann, Levi, Lensch, Heine, Parvus, Victor · Adler, Max · Adler, Friedrich, Bauer, Renner, Hilferding, Jaures, Longuet, Millerand, Sembat, Vandervelde, van Kol, Hyndman, Hardie, Bax, MacDonald, Plekhanov, Martov, Axelrod, Maslov, Trotsky, Bukharin, Zinovyev, Radek. 이상, 『修正主義者・機會主義者著作目錄』,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資料室編印, 1963. 11 참조.

호를 밝혔고 이미 번역된 경우 관련 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회피서’의 표지 날개에는 ‘供內部參考’ 혹은 ‘供批判之用’이라는 표기가 부가되어 책이 내부발행 혹은 수정주의 비판 용도로 출판됐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아울러 甲·乙·丙 등의 3가지 등급에 따라 발행 범위가 제한되었는데 甲類로 분류될 경우 ‘반동성’이 가장 강해 구매와 열람 대상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예컨대 베른스 타인, 카우츠키, 트로츠키 등의 저작이 여기에 포함되었다.¹⁰⁾

1961년 발행이 시작된 ‘회피서’는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외부적 수요에 따라 1963년과 1964년 고조기를 거쳐(100여 종 발행) 문혁 초기 중단되었으나 1972년부터 재개되어 1980년에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2백 여 종의 ‘회피서’가 출간되었다.¹¹⁾ 문혁 초기 “4舊 打破”의 광풍 속에서 이들 ‘수정주의자’ 혹은 ‘기회주의자’의 저작들이 그 발행 목적이 어디에 있든 ‘焚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회피서’는 간행되기 힘들었다. 게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林彪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毛澤東 저작에 대한 “活學活用” 운동이 문혁 초기 더욱 극성하게 됨에 따라 毛澤東 관련 저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¹²⁾ 하지만 林彪事件 및 미국

10) 張惠卿, 「“灰皮書”的由來與發展」, 『炎黃春秋』, 2013-4, p. 62.

11) 張惠卿(12), pp. 62, 65; 許力以, p. 319. 張惠卿과 鄭異凡是 ‘회피서’ 구체적인 저작 목록을 소개하였다.(鄭異凡編, 「有關著作目錄」, 鄭異凡主編, 『灰皮書-回憶與研究』, 瀋江出版社, 2015, pp. 457-460 참조. 여기서 鄭異凡是 49권의 ‘회피서’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宋永毅는 ‘회피서’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 공산당은 대규모의 ‘內部讀物’을 간행했다고 하면서 1976년 이전 발행된 사회과학 방면 서적이 4천 종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다량의 마르크스·레닌·毛澤東 저작을 제외한 문혁 이전 출판된 서방이론 및 문학 저작이 1,041종이었고 문혁기간 출판된 것도 1천 종에 이르렀다.(宋永毅, 「文革中的黃皮書和灰皮書」, 『二十一世紀雙月刊』, 1997年 8月號, 總第42期, pp. 59-60.) 이 수치는 宋永毅가 中國版本圖書館編, 『全國內部發行圖書總目 1949-1986』(內部發行), 中華書局, 1988을 참조해 얻은 것이다.

12) 구체적으로 1966년에서 1970년 사이 毛澤東 관련 저작이 연평균 20억

과의 관계 개선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출판시장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 결과 1966년에서 1970년까지 2,729종의 일반도서간행된 것에 비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7,500여종의 철학·사회과학도서가 간행되었다.¹³⁾ 1970년대 초 도서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약화된 데에는 1970년 공산당9기2중전회에서 毛澤東에 의해 제시된 역사·철학 학습 강화 지시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 이때 중국철학사 이외에도 유럽철학사까지 포함된 다양한 서적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陳伯達의 ‘天才論’에 대한 비판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¹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피서’의 간행은 자연스럽게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혁세대 일반인이 이들 내부발행 도서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혁을 직접 경험했던

책이 발행된 반면 동시 마르크스·레닌·스탈린 저작 간행은 891만 3천 책 정도였다.(方厚樞, 『中國出版史話』, 東方出版社, 1996, pp. 263-264.) 관련하여 1964년 모택동 저서에 대한 “活學活用”을 강조한 林彪는 1966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전 저작 가운데 99%의 노력을 혁명의 교과서인 毛澤東 저작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總政治部關於貫徹執行林彪同志對部隊文藝工作指示的通知』(1964. 5. 31.); 林彪, 『關於把學習毛主席著作提高到一個新階級的指示』(1966. 9. 18.), 宋永毅 主編, 『中國文化大革命文庫』,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大學服務中心, 2010(第3版) 수록, 참조.)

13) 方厚樞, 『中國出版史話』, 東方出版社, 1996, pp. 267-268. 이 가운데 약 80%는 당시 정치운동과 관련을 지닌 소책자였다.

14) 毛澤東, 『我的一點意見』(1970. 8. 31.), 『在中共九屆二中全會閉幕會上的講話』(1970. 9. 6.),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3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pp. 114-115, 126-127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중공중앙은 구체적인 학습 대상 목록을 선정해 간부들에게 학습을 지시했으며(『中共中央關於高級幹部學習問題的通知』(1970. 11. 6.), 『中國文化大革命文庫』 수록, 참조) 毛澤東은 1970년 12월 당 중앙 지정 마르크스주의 고전 이외에 서구 역사와 자연과학 서적을 학습했다는 姚文元의 태도에 동의를 표하며 혁슬리의 책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毛澤東, 『對姚文元關於最近學習情況等問題報告的批語』(1970. 12. 29.),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3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pp. 193-194.)

上海大學 역사과 교수 朱學勤은 1974년 ‘회피서’ 구매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毛澤東이 허가한 두 종류의 금서는 福州路에 위치한 上海書店에서 판매하였다. 서점 2층 內部書籍 공급판매대에서 ‘縣團級’과 ‘地師級’ 소개장에 의거하여 이들을 구별해 구매할 수 있었다. ... ‘내부’에는 또 다른 ‘내부’가 있었다. 내부의 또 다른 판매대는 ‘省軍級’의 소개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며 가장 ‘반동적’인 서적 공급이 이뤄졌다.”¹⁵⁾

어렵게 허가증을 입수한 朱學勤은 ‘회피서’ 구매에 성공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이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금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抄家], 절도, 교환, 구매, 필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¹⁶⁾ 그 결과 ‘현대판 焚書坑儒’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大毒草’로 낙인찍힌 일부 서양 번역서는 문혁 이전보다 더 광범하고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전파되었다.¹⁷⁾

전체적으로 볼 때 ‘회피서’가 청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시기는 문혁 초기(1966년-1968년)보다는 후기에 해당하는 1969년

15) 朱學勤, 「‘娘希匹’與‘省軍級-‘文革’讀書記」, 『上海文學』, 1999年 第4期, pp. 64-65. 朱學勤은 페어뱅크의 『美國與中國』, 『西方資產階級哲學社會學學術資料選』, 『蘇聯修正主義哲學資料選』 등을 ‘반동서적’의 그 예로 들었다.

16) 각각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鄭瑞君, 「“灰皮書”·“黃皮書”在知識青年“上山下鄉”前後的流傳及其影響」,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2015. 3, p. 24; 印紅標(2012), pp. 66-69 참조. 게다가 1966년 여름 “4구 타파”의 풍파가 지나간 뒤에 문혁세대는 각급 도서관을 제한적이지만 이용할 수 있었고 개인 소장도서, 약탈 혹은 도난당한 도서 그리고 폐지 가운데에 ‘회피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17) 1966년 사천성 성도시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고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인 徐友魚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 ‘독초’는 불태워지거나 폐지로 제지공장에 보내졌지만 상당수는 보존되어 문혁 이전보다 자유롭게 열람될 수 있었다.(徐友魚, 『自由的言說: 徐友魚文選』, 長春出版社, 1999, pp. 166-169.)

부터 1976년까지였다. 왜냐하면 1968년 말 상한하향운동으로의 홍위병운동 전환과 1971년 林彪사건은 문혁 청년세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문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회피서’의 대부분 저자는 국제공산주의운동 가운데의 ‘叛徒’ 혹은 ‘수정주의자’로서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직접 경험했고 폭력적 권력투쟁 혹은 숙청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유사한 경험을 한 문혁세대가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 저작에 열광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관련하여 ‘회피서’에 대한 열망을 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인 丁東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당시 지칭이었던 나는 많은 지칭들 사이에 회피서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적어도 ‘兩報一刊 사론’ 혹은 8개 樣板戲 극본보다는 흥미로웠다. 이들 ‘금서’를 구입하기 위해 나 역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어느 촌 지칭이 어떤 책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수십 리의 길을 걸어 빌리기도 했고 또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다. 만약 한 권을 구하게 되면 모두는 즉시 순서를 정해 돌려 읽으며 며칠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렇게禁果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 했다. 금기는 동시에 유혹을 의미했다.”¹⁸⁾

이들 ‘禁果’는 문혁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작가 徐明旭은 1967년 말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연말 나는 당시 대학생 조반과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하던 두 권의 책을 읽었다. 그것은 스리랑카 공산당원 구나와드하나(Theja

18) 丁東, 『冬夜長考』, 天津教育出版社, 1996, p. 144. 丁東은 ‘금과’의 목록 가운데에는 후술하는 『신계급』이 포함되어 있다.

Gunawardhana)의 『赫魯曉夫主義』와 미국기자 스트롱(Anan Louise Strong)의 『斯大林時代』였다. 스탈린 대숙청을 그린 이 두 책을 통해 나는 모골이 송연해졌고 모 주석과 문혁이 연상되었다. 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 毛澤東은 스탈린과 같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군이란 사실이었다. 소위 모주석의 혁명노선은 음모와 위계를 통해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가하는 것이었다. 毛澤東은 스탈린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뒤 중국공산당 지도자 역시 반드시 그를 비판할 것이고 문혁을 부정할 것이니 개인승배와 법제 파괴라는 그의 죄는 스탈린과 동일하게 될 것이었다. 이후 나는 다시 조반과 행동에 참가하지 않았다.”¹⁹⁾

이상의 회고를 통해 ‘회피서’가 조반과에게 ‘逍遙派’로의 사상적 전환을 야기할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회피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현실 참여로 귀결된 경우도 있었다. 당대 중국농촌 개혁가 張木生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는 1965년 내몽골 臨河縣 하향 이후의 경험을 통해 1968년 가을 『中國農民問題學習-關於中國體制問題的研究』를 작성하여 지청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의 부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張木生은 현실 사회주의 ‘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며 생산 청부제의 증산 효과를 인정했다. 인민공사라는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은 그가 속했던 생산대에서의 구체적 성과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됐지만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 때문에 그는 독서에 매진했다. 그 대상은 부하린, 카오츠키, 베른슈타인 등의 ‘수정주의’ 저작들이었고 그밖에 후루쇼프의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 비밀보고 및 ‘우파’ 언론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내

19) 蕭瀟, 「文革中的地下讀書運動」, 『華夏文摘』, 「文革博物館專集」(28), 1997.
10. 印紅標에 따르면 저자 蕭瀟는 대표적인 문혁 연구자인 宋永毅라 하면서 그가 제시한 37종의 ‘灰皮書’·‘黃皮書’ 목록을 수정 제시하였다.(印紅標, 『失蹤者的足跡-文化大革命期間的青年思潮』, 香港中文大學, 2009, pp. 259-260.)

부발행의 ‘회피서’였음은 물론이었다.²⁰⁾

張木生과 다른 방식으로 ‘회피서’가 작용한 사례도 많았다. 문혁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의 일방적 선전만 받아왔던 청년세대는 ‘회피서’를 통해 주변 세계 혹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었다.²¹⁾ 예컨대 ‘반면교재’로서 의도된 『第三帝國的興亡』²²⁾은 문혁시기 홍위병에게 예상 밖의 충격을 주었다. 12년이라는 짧은 시기 존속했던 나치 독일의 흥망을 다룬 이 책은 홍위병에게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8년 淮北 평원의 한 구석 촌 생산대에 배치된 경험을 지녔던 화동사범대학철학과 교수인 高瑞泉은 문혁이 한창이던 1973년 『第三帝國的興亡』을 접하면서 “공업화의 통제경제와 사상독재는 곧 파시즘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민족은 이러한 문명의 불건전한 사상을 경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이성을 무시하지 말고 영원히 독립사상의 권리를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²³⁾ 高瑞泉은 개인적 독서 경험을 소개하면서 파시즘의 광풍을 문혁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는

20) 定宜莊, 『中國知青史, 初瀾: 1953-1968年』, 當代中國出版社, 2009, pp. 282-286; 陳小雅, 『北京知青歷程回眸』, 餘夫·汪衛華 編, 『悲愴青春: 中國知青泪』, 團結出版社, 1993, pp. 13-14. 또한 張木生을 비롯한 지청들은 臨河縣 五星公社 團結大隊 내에 지청을 모아 학습하고 『新思潮』라는 제목의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같은 책, p. 16.)

21) 이를테면 『尼克松1973年對外政策報告』, 『尼克松以後的美國』, 『尼克松向美國國會提出的對外政策報告』, 『尼克松其人其事』, 『選擇的必要』, 『西行漫記』, 『杜魯門回憶錄』 등은 毛澤東을 비롯하여 닉슨, 투루먼, 키신저 등 미·중 지도자에 대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중국 인민대중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 ‘회피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全國內部發行圖書總目(1949-1966) 참조.

22) [美] 威廉·夏伊勒著, 董樂山等譯, 『第三帝國的興亡-納粹德國史』(共四冊), 世界知識出版社, 1965. 12.(全國內部發行圖書總目(1949-1966), p. 454.)

23) 高瑞泉, 『不要怕上帝發笑』, 金大陸編, 『苦難與風流: 老三屆人的道路』,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p. 72.

않았지만 문혁세대에게 파시즘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었다.

문혁의 광풍이 어느 정도 잦아든 1967년 말 전국 각지에서 조심스럽게 관방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독서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毛澤東의 문혁을 열렬하게 추종했던 홍위병 내부에 심각한 내부 분열이 발생하였고 그 일부가 소위 문혁파와 그와 연결된 파벌에 의해 비판 배제당하면서 생겨난 문혁에 대한 회의와 불만에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聯動’, ‘逍遙派’, ‘4·3파’ 등 조직적·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했다.²⁴⁾ ‘총부’, ‘사령부’, ‘병단’ 등과 같은 정치적·전투적 군대 명칭을 사용한 일반적인 홍위병들과 달리 그들 조직의 명칭은 보다 학구적이었다. 예컨대 북경의 ‘共產主義青年學社’, ‘北京家庭出身問題研究小組’²⁵⁾,武漢의 ‘北斗星學會’²⁶⁾, 상해의 ‘東方學會’ 등이 그러했다. 이들 조직은 1968년 말 상산하향운동에 따라 홍위병들이 대대적으로 하향하게 됨에 따라 지칭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그 결과 도처에 ‘민간사상촌락’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비밀리에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사상촌’에서는 정치·사회문제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 걸친 독서 모임이 유행했고 ‘회피서’는 그 주된 탐구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⁷⁾

24) 魏光奇는 1967년 9월 이후 북경의 ‘노홍위병’과 ‘4·3파’ 사이에 독서 교류가 시작됐고 1968년 정치사회문제를 연구 토론하는 독서 살롱, ‘2류사’가 출현했다고 했다.(魏光奇, 앞의 글, p. 161.)

25) 이것은 遇羅克的 ‘出身論’署名이었다.(首都中學生革命造反司令部室宣傳部主辦, 『中學文革報』, 1967. 2.)

26) 지도자 魯禮安는 학회의 과제로 문혁연구, 자료수집, 문혁사 편찬, 교육개혁 연구 등을 제시했다.(魯禮安, 「北斗星學會始末」, 『仰天長嘯: 一個單監十年的紅衛兵獄中籲天錄』,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5, pp. 199-203.)

27) 앞에서 인용한 印紅標 역시 ‘민간사상촌’의 실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印紅標, 土屋昌明譯, 「文革後期における青年たちの讀書と思想的探求」,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585, 2012, pp. 72-77 참조. 지칭들은 각종 사회주의 ‘경전’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질라스의 『신계급』, 하에크의 『通向奴役之路』, 트로츠키의 『斯大林評傳』 등 1960년대

결국 문혁 전, 그리고 문혁 후기 집중적으로 간행된 ‘회피서’에는 毛澤東 저작 이외의 다양한 사회주의 경전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교조적으로 강제된 모택동의 저작에 비해 홍위병에게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을 다룬 이들 경전을 통해 홍위병은 절대적 모택동주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당대 중국 사회주의의 과거와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회피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2. 『신계급: 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의 수용과 그 영향

문혁세대에게 강한 사상적·정치적 영향을 준 ‘회피서’는 다양했다. 그 가운데 당시 홍위병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회피서’로서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의 『新階級』가 빈번하게 거론된다. 한 예로 1968년 말 山西省 太谷縣으로 下鄉한 北京 清華附中 조반과 출신 일부 知青은 생산대 편입된 이후 ‘정신적 飛地’를 조직했고 여러 ‘불순분자’의 저작을 탐독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신계급』은 주목을 끌었다.²⁸⁾ 또한 1969년 河北 白洋淀 지역으로 하방당한 북경 출신 지청들은 문혁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회피서’를 찾아 읽으며 기존의 주입된 사상을 넘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들은 『신계급』을 통해 커다란 계발을 받고 “관련 정치·사회 인식을 통해 마침내 악몽의

防蘇防修를 위해 번역된 수정주의 원전을 접했다.

28) 鄭義, 「第五封信: 山西插隊生活」, 『歷史的一部分—永遠寄不出的十一封信』, 臺北: 萬象圖書股份有限公司, 1993, p. 181.

질곡과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²⁹⁾ 특히 지청 출신 문혁 연구자인 鄭義는 『신계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

“이들 책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학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로부터 모택동사상·스탈린주의 심지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단지 이들 異端邪說이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60-70년대 교체기의 청년 사상계에 있어 가장 큰 의의를 지녔다.”³⁰⁾

이상, 문혁시기 『신계급』의 유행과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책을 중심으로 문혁시기 ‘異端邪說’의 수용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³¹⁾

29) 1968년 북경사대부속중학을 졸업한 뒤 하북 白洋澱 생산대대에 배치된 지청 潘婧 1969년 겨울의 독서 경험 참조.(徐曉 主編, 『民間書信 1966-1977』, 安徽文藝出版社, 2000, p. 72.) 또한 廖亦武, 『沈淪的聖殿』, 新疆青少年出版社, 1999, pp. 209-210, 鄭瑞君, 「‘灰皮書’·‘黃皮書’在知識青年‘上山下鄉’前後的流傳及其影響」,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2015. 3, p. 24 참조.)

30) 鄭義, 「第五封信: 山西插隊生活」, 『歷史的一部分-永遠寄不出的十一封信』, 臺北: 萬象圖書股份有限公司, 1993, p. 181.

31) 물론 이외의 ‘회피서’ 역시 홍위병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法國革命史』 가운데 묘사된 혁명과정에서의 나타난 다양한 계급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태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 홍위병은 문혁 과정에서의 과별 분화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第3帝國的興亡』에서 제시된 나치 독일의 실상은 자신들이 경험한 문혁의 모습과 서로 판에 박은 듯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서방과 세계의 최신 정치·사회·문화 발전을 반영한 ‘회피서’는 당시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蕭蕭, 「文革中的地下讀書運動」, 『華夏文摘』, 「文革博物館專集」(28), 1997. 10.)



- ① 密洛凡·吉拉斯 著, 陳逸 譯, 『新階級』(供內部參考), 世界知識出版社, 1963. 2.
 ② 密洛凡·吉拉斯 著, 陳逸 譯, 『新階級(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供內部參考), 中共中央政法委員會理論室, 1981. 5.
 ③ 밀로반 질라스 저, 이호선 역, 『위선자들: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 리원, 2020.

『신계급』은 티토(Josip Broz Tito, 1892-1980)와 함께 구 유고슬라비아연방 공산당을 이끌었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 부통령을 역임했던 밀로반 질라스(1911-1995)가 1957년 미국 프레드릭 프레이저(Frederick A. Praeger)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1958년 10차 인쇄본)의 中譯本이다. 번역본은 陳逸의 번역에 의해 1963년 2월 세계지식출판사에 의해 처음 출간되었고³²⁾ 1981년 5월 中共中央政法委員會理論室에 의해 ‘내부 참고용’으로 재발행되었다.³³⁾

32) 中國版本圖書館編, 『全國內部發行圖書總目 1949-1986』(內部發行), 中華書局, 1988, p. 44.

33) 密洛凡·德熱拉斯著, 陳逸譯, 『新階級』(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 供內部參考, 中共中央政法委員會理論室, 1981. 5. 책의 「重印說明」에 따르면 내용은 ‘內容提要’를 추가한 것 이외에 원래 판본 그대로이며 글자 크기만 확대됐다. 국내 번역본으로는 최근 이호선 역, 『위선자들: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리원, 2022)이 있다. 번역본 제목과 부제를 통해 역자의 공산체제에 대한 적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동서는 이우현·김대훈 공역, 『새로운 계급: 공산주의제도의 분석』, 대학교재공사,

1981년의 「重印說明」에 따르면 再版의 목적은 ‘회피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반면교제’로의 활용에 맞춰졌다. 그에 따르면 1981년 당시 중국에 여러 불법조직, 불법간행물이 등장하여 ‘민주전사’, ‘인권전사’를 자칭하며 ‘민주 쟁취’, ‘자유 쟁취’, ‘인권 쟁취’를 내걸고 인민민주독재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특권관료 전제제도’라고 공격하였고, 공산당의 지도를 ‘관료계급’, ‘새로운 통치계급’의 그것으로 모멸하며 ‘제2차 혁명’을 선동하고 있었다. 이를 과거 질라스 주장의 재등장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공산당은 『신계 급』 재판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회피서’로서의 『신계 급』이 지닌 집권당의 일방적 효용성이 다시 등장한 것이었다.

레닌에 따르면 본래 ‘신계급’은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치열한 전투를 진행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주체였다.³⁴⁾ 하지만 질라스는 『신계급』을 통해 공산주의혁명이 계급 소멸을 호소하며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전무후무한 권위를 장악한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으며 이 계급은 행정대권을 독점하고 여러 특권과 경제 우선권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공산혁명이 국가자본주의혁명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혁명 이후 국가 자본주의 내에서 새로운 정권이 모든 정치, 노동과 그 외의 관계를 규제하고 국가수입과 혜택을 분배하는 특권을 독점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국유화된 재산이나 사회화된 재산을 공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지배하는 특권관료 계급이 곧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새로운 지배계급 혹은 수탈계급이 될 것이었다.

1957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34) 「無產階級專政下的文化大革命勝利萬歲—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八十周年」, 『人民日報』, 1967. 10. 1. 한편, 1972년 건국 23주년 기념 사설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핵무기 경쟁에 몰두하는 미국과 소련을 가리켜 ‘신계급’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奪取新的勝利」, 『人民日報』, 1972. 10. 1.)

비록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질라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할 뿐 공산주의 이념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체제 권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의 주장을 중국 공산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산당과 이들 신계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계급』의 다음과 같은 논리는 “造反”과 “奪權”을 통해 기존 사회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등장한 문혁세대에게 커다란 공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대체로 볼 때 이 신계급이 점점 더 강해지면 질수록 그리고 그의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당의 작용은 점차 줄어들는다. 신계급의 핵심과 기초는 당, 당의 지도계층 및 국가의 정치기구 가운데에서 창조된다. 한때 생기발랄했고 엄격한 조직과 창의성이 넘쳤던 당은 이제 쇠락해지며 점차 이 신계급의 전통적 과두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당은 신계급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반면 다른 이상을 지닌 자들을 억압하였다.³⁵⁾”

결국 질라스에 따르면 공산당은 “이 (특권)계급의 핵심이며 기초이고”, “黨籍은 이 특권계급에 속한 사람들임을 표시하는 것이며 당의 핵심인물은 全權을 장악한 수탈자이자 주인이고”, “사회주의 소유권은 진정한 정치관료 소유권의 가면에 불과했다.”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체제 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당내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走資派) 타도를 전면을 내세운 문혁이라는 특수한 정치운동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수용될 수 있었다. 특히 “신계급=주자파=특권(관료)계급”을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면서 그들에 대한 타도를 정치적 「강령」으로 내세운 문혁시기 대표적 ‘極左派’였던 省無聯(湖南省無產階級革命派大聯合委員會)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주장했다.

35) 密洛凡·德熱拉斯著, 陳逸譯, 『新階級』(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 供內部參考, 中共中央政法委員會理論室, 1981. 5, p. 52.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계급 문화대혁명을 전개하는 것은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타도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계급혁명파가 썩은 신생 부르주아계급특권계층(그들은 劉少奇, 鄧小平을 수반으로 한 부르주아계급사령부를 구성했다)을 타도하고 부르주아계층을 위해 복무하는 구 국가기구를 박살내는 것이다. ... 특권계급의 출현은 일부 생산관계가 이미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³⁶⁾

정치 행정적 구분으로서의 특권계층이 하나의 경제적 토대를 확보함으로써 특권계급화되었으며 이러한 당내의 새로운 계급을 타도하는 것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문혁이었다. 「강령」의 작성자로 알려진 中南礦冶學院 학생 張玉綱이나 省無聯의 핵심이론가였던 楊曦光이 질라스의 『신계급』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혁의 타도대상과 질라스의 ‘신계급’은 특권계급으로서의 ‘走資派’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 즉 ‘走社派’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張木生 역시 1969년 12월 한 ‘지하살롱’에서 간부와 대중 사이의 주요모순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 내의 새로운 관료계급이 부르주아계급의 남은 法權을 유지하여 대규모 주자파를 형성할 것이라 함으로써 질라스의 주장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급과 주자파를 연결 지었다.³⁷⁾

이들 ‘극좌파’나 ‘지하살롱’과 같은 민간조직의 움직임과 유사한 흐름을 중앙문혁소조 내의 ‘급진파’를 형성했던 王力, 戚本禹, 關鋒의 『신계급』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1967년 5월 경 毛澤

36) 湖南省無產階級革命派大聯合委員會, 「我們的綱領」(1967. 12.), 宋永毅 主編, 『中國文化大革命文庫』,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大學服務中心, 2010(第3版) 수록, 참조.

37) 張木生, 「對中國農業體制問題的一些思考-在一次地下沙龍活動上的發言-」(1969. 12.), 『中國文化大革命文庫』, 수록 참조.

東의 지시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 하의 계속혁명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질라스의 『신계급』을 참조했다. 그들 역시 공산당 집권 이후의 새로운 특권 계급이 필연적으로 등장하여 모든 국가 자원을 독점한다고 질라스의 주장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당시 문혁을 즈음한 중국의 상황에 매우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주자파’를 곧 ‘신계급’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들은 질라스를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문혁이라는 ‘계속혁명’을 통해 이들 특권계급의 발생과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신계급』의 논리는 ‘주자파’ 공격이라는 급진파의 문혁 추진 논리 가운데 하나로 승화되었다.³⁸⁾

북경 ‘4·3파’ 홍위병 출신 魏光奇의 경험은 『신계급』의 논리가 홍위병세대에게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魏光奇의 회고에 따르면 ‘4·3파’ 홍위병이 기존 정통적 문혁관과 다른 사고를 하게 된 계기는 ‘혈통론’ 비판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문혁이 단기간 내에 수많은 대중들을 끌어 들일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현실적인 사회적 기초, 즉 ‘특권계층’과 수많은 인민대중 사이의 모순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현실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문혁은 비로소 단순한 공산당 내의 권력·노선 투쟁을 넘어 하나의 사회투쟁으로 발전했고 ‘주자파’ 역시 정치적인 파벌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계층(특권계층)이 될 수 있었다.³⁹⁾ 그렇기 때문에 魏光奇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8) 이상, 戚本禹, 『戚本禹回憶錄』(上·下冊), 香港: 中華文庫出版有限公司, 2016, pp. 669-670. 한편, 이들의 연구 결과물은 『人民日報』·『解放日報』, 『紅旗』 합동 사설, 「沿著十月社會主義革命開闢的道路前進」(1967. 11. 6.)으로 발표되었다.

39) 이상 魏光奇, 앞의 글, p. 160 참조. 아울러 이러한 사상적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4·3파 선언」으로 알려진 「論新思潮」였다.(編輯部, 「論新思潮-四三派宣言」, 『四三戰報』第1期(1967. 6. 11.), 『中國文化大革命文庫』 수록, 참조.) 북경 ‘4·3파’의 ‘신사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孫承會,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2019, pp. 124-129 참조.

“질라스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모택동의 ‘계속혁명론’과 일부 합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문혁기간 혈통론에 따른 배척과 박해를 받은 ‘非紅五類’ 학생과 간부자제 사이에 거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노동자·농민의 자제에게 이 주장은 극히 큰 흡인력을 지녔다.”⁴⁰⁾

결국 ‘4·3파’ 홍위병의 ‘신계급론’ 수용은 毛澤東의 ‘계속혁명론’ 혹은 ‘권력과 재산의 재분배론’⁴¹⁾을 매개로 논리적 구조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⁴²⁾ 사실, 이들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毛澤東의 구상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 근거로 그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 아래 추진된 소련 수정주의와의 논전 가운데 1964년 7월 14일 발표된 『人民日報』 사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설은 당시 소련공산당과 국가의 지도권이 새로운 부르주아계급 특권계층에 의해 장악됐다고 하면서 이들 특권계층은 당정기관과 기업·농장을 지도하는 가운데 타락한 변질분자 및 부르주아계급지식분자로 구성되어 노동자 등과 대립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³⁾ 물론 위의 비판이 소련에

40) 魏光奇, 「‘文革’時期讀書生活漫憶」,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中國近現代史研究專輯, 2003年增刊, p. 162.

41) 이 주장을 공개한 것은 江青이었지만 그 역시 毛澤東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江青在軍位擴大會議上的講話』(1967. 4. 12.), 『中國文化大革命文庫』 수록, 참조.)

42) 그렇기 때문에 印紅標는 문혁 청년세대의 사상 변화를 ‘신사조’에서 ‘신계급’으로 변화라는 시각에서 추적했다. (印紅標, 「從‘新思潮’到‘新階級’-文革中青年的社會批判思潮」, 宋永毅 主編, 『文化大革命: 歷史真相和集體記憶』(上策), 香港: 田園書屋出版, 2008 참조.)

43) 「關於赫魯曉夫的假共產主義及其在世界歷史上的教訓: 九評蘇共中央的公開信」, 『人民日報』·『紅旗』, 1964. 7. 14. 원 제목은 「無產階級專政和赫魯曉夫的假共產主義」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毛澤東에 의해 수정되었다. 그의 지시에 대해서는 「對「關於赫魯曉夫的假共產主義及其在世界歷史上的教訓」稿的修改」(1967. 7.), 『建國以來毛澤東文庫』第11冊, 中央文獻出版社, 1997, p. 102 참고. 아울러 모택동의 「9평」 작성에 관한 구체적 관여 과정에 대해서는 逢先知·金沖及 主編, 『毛澤東傳』(5), 中央文獻出版社, 2011, pp. 2251-2274 참조.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중국 내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중국 내부를 겨냥한 비판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급진적으로 실천된 것이 곧 문혁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毛澤東에게 특권계층의 핵심부분은 ‘주자파’ 혹은 관료주의자계급⁴⁴⁾이 될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질라스의 ‘신계급’이 될 터였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毛澤東을 포함한 문혁파 혹은 극좌파는 질라스와 동일하게 공산당정권 아래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것임을 예상하였지만 그 해결책은 전혀 달랐다. 질라스는 ‘신계급’의 스탈린 체제의 타도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毛澤東 등은 ‘신계급’의 타도와 방지를 위해 문혁을 통한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추구했던 것이었다. 반면 문혁을 직접적 경험한 홍위병세대에게 그것은 毛澤東과 문혁에 호응하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었다.

II. 결론

공산당이 파시스트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경고는 毛澤東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관료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피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반혁명 復辟이 일어나 마르크스·레닌주의

44) 1964년 12월 모택동은 이미 관료주의자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립하는 두 계급으로 투쟁과 혁명의 대상이란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관료주의자계급과 노동자계급·빈농층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개의 계급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피를 빼는 부르주아계급분자로 이미 변모했거나 변화 중이다. ... 이들은 투쟁의 대상이며 혁명의 대상이다.” (이상, 陳正人, 『給薄一波同志的信』(1964, 12. 4.), 『陳正文集』,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09, pp. 381-383; 楊繼繩, 『天地翻覆-中國文化大革命(文革)歷史』, <https://hk.aboluowang.com/2016/0519/741037.html>에서 재인용 (검색시각, 2023. 2. 15.) 참조.)

정당이 반드시 수정주의 정당으로 변모하고 파시스트정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⁴⁵⁾

파시스트정당은 위의 모택동 지적에 따르면 관료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에 따른 특권관료계층에 의한 정당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한 프롤레타리아계급 권력·재산의 재분배 또는 부르주아계급의 복벽을 막기 위해 혁명은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혁의 지배적 담론은 형식적으로 볼 때 질라스의 『신계급』에서 보이는 ‘신계급론’, ‘특권계층론’ 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문혁세대가 큰 거부감 없이 이들 ‘회피서’를 수용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담론과의 유사성이 큰 작용을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회피서’는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이 제한된 ‘내부발행’된 금서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정주의자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물이었다. 그러나 이들 금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혁세대에 전달되었고 기존 사회주의 현실과 이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홍위병의 해체와 지식청년의 등장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지하독서운동의 과정에서 ‘회피서’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그 결과 ‘회피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혁세대에게 주입식 선전 효과가 아닌 반대의 사상적 계몽을 자극하며 맹목적 체제 수용이기보다는 회의와 성찰 그리고 비판을 야기했다.

45) 毛澤東, 「轉發浙江省七個關於幹部參加勞動的好材料的批語」(1963. 5. 9.), 『建國以來毛澤東文庫』第10冊, 中央文獻出版社, 1997, p. 293. 이 지시는 浙江省의 7개 자료와 함께 「中共中央關於目前農村工作中若干問題的決定(草案)」(「前十條」로 약칭)(1963. 5. 20.)에 포함되었다.(『中國文化大革命文庫』수록, 참조.) 이후 문혁 개시를 즈음해 같은 주장이 『人民日報』, 『解放軍報』 등 당 기관지와 林彪, 周恩來 등 당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 핵심인물에는 심지어 劉少奇까지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建國以來毛澤東文稿』, 中央文獻出版社, 1998
- 密洛凡·吉拉斯 著, 陳逸 譯, 『新階級』(供內部參考), 世界知識出版社, 1963. 2
- 密洛凡·吉拉斯 著, 陳逸 譯, 『新階級(對共產主義制度的分析)』(供內部參考), 中共中央政法委員會理論室, 1981. 5
- 宋永毅 主編, 『中國文化大革命文庫』,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大學服務中心, 2010 (第3版)
- 首都中學生革命造反司令部室宣傳部主辦, 『中學文革報』, 1967. 2
- 中國版本圖書館編, 『全國內部發行圖書總目 1949—1986』(內部發行), 中華書局, 1988
- 『人民日報』
- 밀로반 질라스 저, 이호신 역, 『위선자들: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 리원, 2020
- 밀로반 질라스 저, 이우현·김대훈 공역, 『새로운 계급: 공산주의제도의 분석』, 대학교재공사, 1957
- 金大陸 『正常與非正常—上海‘文革’時期的社會生活』(上·下), 上海辭書出版社, 2011
- 魯禮安, 『北斗星學會始末』, 『仰天長嘯: 一個單監十年的紅衛兵獄中籲天錄』,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5
- 劉國凱, 『人民文革論』, 博出版社, 2006
- 方厚樞, 『中國出版史話』, 東方出版社, 1996
- 逢先知·金沖及 主編, 『毛澤東傳』(5), 中央文獻出版社, 2011
- 宋永毅 主編, 『文化大革命: 歷史真相和集體記憶』(上策), 香港: 田園書屋出版, 2008
- 宋永毅·孫大進, 『文化大革命和它的異端思潮』, 香港: 田園書屋, 1997
- 楊建, 『1966—1976的地下文學』, 中共黨史出版社, 2013
- 徐友魚, 『自由的言說: 徐友魚文選』, 長春出版社, 1999
- 印紅標, 『失踪者的足跡—文化大革命期間的青年思潮』, 香港: 中文大學, 2009
- 錢理群, 『燭火不息: 文革民間思想研究筆記』(上·下卷),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丁東, 『冬夜長考』, 天津教育出版社, 1996

- 定宜莊, 『中國知青史, 初瀾: 1953-1968年』, 當代中國出版社, 2009
- 鄭異凡 主編, 『“灰皮書”-回憶與研究』, 漓江出版社, 2015
- 趙園, 『非常時代: 1964-1978』(上·下冊),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戚本禹, 『戚本禹回憶錄』(上·下冊), 香港: 中華文革出版有限公司, 2016
- 孫承會, 『文化大革命과 極左派: 毛澤東을 비판한 紅衛兵』, 한울엠플러스, 2019.
- 高瑞泉, 「不要怕上帝發笑」, 金大陸編, 『苦難與風流: 老三屆人的道路』,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 徐友魚, 「上山下鄉大知青一代思想形成的影響」, 『二十一世紀雙月刊』, 2013. 4, 總第136期
- 蕭蕭, 「文革中的地下讀書運動」, 『華夏文摘』, 「文革博物館專集」(28), 1997. 10.
- 宋永毅, 「文革中的黃皮書和灰皮書」, 『二十一世紀雙月刊』, 1997年 8月號, 總第42期
- 魏光奇, 「“文革”時期讀書生活漫憶」,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中國近現代史研究專輯, 2003年增刊
- 張惠卿, 「“灰皮書”的由來與發展」, 『炎黃春秋』, 2013-4
- 張惠卿, 「“灰皮書”的由來和發展」, 『出版史料』, 2007-1
- 張惠卿, 「國際反修鬭爭和“灰皮書”」, 『炎黃春秋』, 2009-9
- 鄭瑞君, 「“灰皮書”·“黃皮書”在知識青年“上山下鄉”前後的流傳及其影響」,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2015
- 朱學勤, 「“娘希匹”與“省軍級”-“文革”讀書記-」, 『上海文學』, 1994-4
- 陳小雅, 「北京知青歷程回眸」, 餘夫·汪衛華 編, 『悲愴青春: 中國知青泪』, 團結出版社, 1993
- 印紅標, 土屋昌明譯, 「文革後期における青年たちの讀書と思想的探求」,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585, 2012

(투고일: 2023. 8. 12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손승희
소 속: 영남대 역사학과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전자우편: sonshoi@ynu.ac.kr

[Abstract]

**The Recep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Gray Books”
during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Son, Seung-Hoi

“The Gray Books” were internally publish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th limited access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early 1960s, China translated and published various theoretical works of Western socialists in order to criticise the “international revisionists”, mainly the Soviet Union, and to secure the primacy of the Chinese socialist system. However, these banned books were transmitted to the Cultural Revolution gener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provided an intellectual opportunity for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existing communist reality and ideology. A typical example is Milovan Djilas’s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The book was written to criticise the communist system and was therefore popular with “the rights” and “the apathy mass” who were disappointed with the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book was also likely to be positively accepted as a reference book by the Moonhyeok school, which identified the Authoritarianism on the road to capitalism= privileged bureaucracy=new class. This was because the “new class theory” was also a discourse that guaranteed the legitimacy of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set out to prevent the resurgence of the privileged class. Thus, the prevalence of “the Gray Books” reveals the paradox behind the reality of the Cultural Revolution symbolised by “burning books and burying scholars”.

Key Word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Gray Book”,
new class, Milovan Djilas, Mao zedong